

# BKL ALUMNI NEWSLETTER



BKL focus

BKL spotlight

BKL news

Alumni news

‘한국 금융의 메인 닥터’ 신제윤이 위기에서 배운 것들  
현대코퍼레이션 여영찬 전무와의 유쾌한 만남

bkl



## CONTENTS

<b>BKL focus</b>	‘한국 금융의 메인 닥터’ 신제윤이 위기에서 배운 것들	04
<b>BKL spotlight</b>	현대코퍼레이션 여영찬 전무와의 유쾌한 만남	08
<b>BKL news</b>	‘더 판교’ 확장이전 “속도감 있는 협업환경 구축”	12
	BKL, 변화의 시기에 발맞춘 전문팀 출범... 금융범죄·헬스케어 등 분야 전문성 강화	12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신속정확한 대응	13
	2021년 매출 ‘3857억원’ 역대 최대 실적 경신	13
	수상소식	14

금융의 대동맥부터 모세혈관까지 들여다봐온

# 한국 금융의 메인 닥터 신제윤이 위기에서 배운 것들

사진출처: 월간 ANDA (2017 05호)



“9월 위기설이 과장됐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이었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신제윤이 출국했다. 비행기 트랩에 오른 이유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위한 해외 로드쇼였다.

당시 한국 경제엔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환율이 오르고 유가는 급등하고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연초부터 적자로 돌아선 국제수지는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외신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가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달러를 확보해야 했다.

‘혹시라도 외평채 발행이 실패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할 만큼 신제윤은 외평채 발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었다. 막상 뉴욕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다. 연기금 등 소위 ‘큰 손’들을 찾아가 교섭에 들어갔는데 물음은 단 한 마디였다.

“내부적으로 얼마를 예상하고 왔는가?”

“맥시멈으로 미국 국채 대비 200bp(2%포인트) 정도 (가산하는 걸) 생각하고 왔다.”

“한국에 돌아가라. 500bp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개런티 못한다. 돈이 말랐다.”

그 다음날,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져 내렸다. 신제윤이 ‘200bp’를 이야기하던 바로 그 시점에 월 스트리트의 이너 서클은 이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눈앞이 아찔했다.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외평채 발행 실패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신제윤은 로드쇼에서 돌아오자마자 쉴 새 없이 동분서주해야 했다. 달러 확보는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원화와 미 달러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와프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국가 신용등급이 싱글A(A)인 나라가

금융시장이 어려울때마다  
문제해결을 주도해  
'위기에 강한 사나이',  
'위기 해결사'로 불려온  
신제윤 고문



사진출처: 이코노미 조선 이슈&피플 121호 (2014)

트리플 A(AAA)인 나라와 통화를 맞교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틀린 말이 아니었다.

먼저 기존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던 일본에 증액을 요청했다가 단번에 퇴짜를 맞았다. 기벌 곳은 미국뿐이었다. 신제윤은 이광주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함께 미국 준비제도이사회(FRB), 재무부를 상대로 '불가능한 협상'에 나서야 했다.

"한국이 어려워지면 미국도 어려워진다. 금액은 관계없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한국을 백업해준다는 게 중요하다. 소규모의 미군 주둔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신제윤의 품 속에 있었던 사표의 힘이었을까.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절박함은 기적을 이뤄냈다.

10월 30일 300억 달러상당의 원화-달러 교환이 발표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뒤이어 중국, 일본과 동시에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2008년 9월은 신제윤에게 너무도 뼈아픈 경험이었다. 돈의 흐름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난리(외환위기)를 겪어놓고도 한국엔 진정한 국제금융 전문가가 없구나. 월 스트리트와 네트워크가 이 정도였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신제윤이 미국 투자은행에 한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주도한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위기는 금융위원장으로 있던 2014년 1월이었다.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전 국민이 털렸다. 대통령도 털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금융회사 CEO들을 긴급 소집했다. "향후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라." 동시에 TF를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고음은 한 달 간 이어졌다. 정보 유출 사실이 카드 이용자들에게 속속 통보되면서 불안감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다. "유출된 카드사의 모든 신용카드를 교체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민의 카드를 바꿔주려면 6개월 내내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보제공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일 브리핑하는 등의 신용사회 구축방안을 추진해 불안을 진정시켜 나갔다.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자." 그때 정치권에서 과격한 주장이 나왔다. 신용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자는 것이었다. 신제윤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다. 그는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핀테크 생태계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에 대한 제약은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가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10년 안에 금융 부가가치를 10% 올리자"는 '텐-텐(ten-ten) 전략'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핵심은 신용데이터 활용에 있었다. 2014년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만 없었다면 지금 우리 금융은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아쉬움이다. 당시 만들어진 규제는 5년후인 2019년 데이터 경제3법이 개정되고서야 사라졌다.

삶에든, 금융에든 예기치 않은 패닉이 엄습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나가고,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흔들림 없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질 줄 알아야 한다. 편견이나 선입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원칙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차게 밀려오는 격랑 속에서 균형 감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신제윤의 금융관은 명확하다. 금융은 금융 원리대로 가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이 당장의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요구에 좌우된다면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LTV나 DTI 같은 금융 건전성 대책을 부동산 대책에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금융정책은 금융을 위해 써야 하고, 쓰더라도 다른 대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원칙과 수리를 중시하는 그의 원칙은 삶에 체화돼 있다.

돌아보면 숨가쁜 순간들이었다. 한미FTA 금융서비스 협상, 글로벌 금융위기, G20 차관회의 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국제금융협력대사... 수도 없이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130만 마일. 서울과 뉴욕을 95회 가까이

오가야 하는 거리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그가 그 거리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책임감이었다.

공직자로서 말은 바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도, 동료들 격의 없이 대하고 배려하는 업무 스타일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존경 받는 상사로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그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후배들이 많다. 현재 금융위 출신들의 친목 모임인 금융동우회 회장으로 있다.

신제윤은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 금융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제금융시장에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던 게 그의 예상이다.

"가상화폐가 대세로 자리잡으며 국제금융 결제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면 자금 세탁 금지와 테러 방지를 위한 규제가 본격화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 달러에 도전하는 중국 위안화와 복잡하게 맞물리면 필연적으로 대형 법적 분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금융의 대동맥부터 모세혈관까지 들여다봐온 '한국 금융의 메인 닥터' 신제윤이 앞으로도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 JTBC보도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현대코퍼레이션 여영찬 전무인터뷰

술이 술술~ 인생이 술술~ 유쾌하고 담백한 만남

“사람들과의 인연, 분위기를 소중히 하다 보니 어느새 좋은 직장도 자리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어느날 광화문 테라로사 카페에서 인터뷰중인 여영찬 전무

“사람들과의 인연, 분위기를 소중히 하다 보니 어느새 좋은 직장도 자리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타공인 애주가인 현대코퍼레이션 여영찬 전무의 말이다. 그는 사업연수원(34기) 수료 후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BKL)을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줄곧 변호사,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BKL 재직 당시 한 파트너 변호사의 추천으로 현대코퍼레이션에 파견·입사한 이후 계속 법무팀에서 근무해오다, 최근 영역을 넓혀 법무와 사업개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컨버전스 시대,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난제도 ‘술술’ 유연하게 풀어가며, 멀티플레이어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영찬 전무를 만나봤다.

## 현대코퍼레이션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상품 트레이딩을 메인으로 자원개발, 투자, 역외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수행하는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철강, 자동차, 건설기계, 전력 설비, 석유 제품 등의 무역거래를 증개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같이 시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현대코퍼레이션 법무실에서 근무해 왔고, 2년 전부터는 사업 개발 담당중역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에서는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국내법 관련 자문, 해외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합니다. 회사 특성 상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응하거나, 해외 로펌과 협업하여 역외 쟁송을 진행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현대코퍼레이션 법무실은 39기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법무팀장님을 중심으로 국내외 변호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와 사업개발, 어떻게 병행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법무 업무를 주로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사업개발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업무를 5년 넘게 수행하다 보니, 다른 역할에 대한 관심과 갈증이 있던 차에 회사의 배려로 2018년 수소사업 TFT를 맡게 되었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개발을 담당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망한 기업과 제품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함께 시장을 넓히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대학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NFT’에 대한 공부까지 하고 있네요.



1~3 현대코퍼레이션 화학 부문은 가솔린, 디젤유 등 석유제품의 트레이딩에서 항공유 급유, 해상 벙커링은 물론 올레핀, 아로마틱, 합성수지, 합성원료 및 화학비료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한다. (사진출처: 현대코퍼레이션 공식홈페이지)

### 현대코퍼레이션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업무 특성상 잦은 해외 출장이 특징인 것 같아요.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가보기 힘든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같이 지구 반대편 국가들도 다녀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오갔습니다. 덕분에 항공사 마일리지도 두둑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7시 반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빠른 출퇴근 시간으로 얼리버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퇴근 후, 혹은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검도와 복싱, 사회인 야구 등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수송동 소재 현대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여영찬 전무가 활짝 웃고있다.

### 많은 회사들 중 현대코퍼레이션을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적극적으로 이직을 꿈꾸거나 사내변호사를 희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3년경 현대코퍼레이션 법무실 이 로스쿨 졸업생들을 처음 받으면서 인원과 구성을 재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법무실 안정화를 위해 BKL에 파견을 요청했는데 마침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잠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입사한지 어느새 9년 차가 됐네요. 그간 담당했던 사건이 많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겨 주신 덕에 이곳에 계속 남게 된 것 같습니다.

BKL 재직 당시 저는 많은 부서와 업무를 거쳤습니다. 기업회생, 증권금융, 기업구조조정, 기업법무, 일반소송, 가사, 경영권 분쟁까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러 업무 경험을 쌓았었는데 기업에 와서는 다방면으로 일을 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BKL을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경험은?

제 기억 속 태평양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따뜻한 로펌입니다. 좋은 분들과의 인연으로 업무 외에 동료, 선후배님들과 술 한 잔 나누며 많은 얘기를 나누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밤새 일하다 함께 남은 변호사님들하고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새벽에 축구 경기 보다가 회사에서 잠들기도 하고요.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나는 좋은 추억이죠.

###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거창한 목표나 계획은 없습니다. 또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다만 한 가지 계획이 있다면 55세이후부터는 '제2의 라이프'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법무나 사업개발, 투자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제부터 천천히 (법조인, 투자가가 아닌) 아주 새로운 두 번째 삶을 그려나갈 생각입니다.

인터뷰 진행 | 홍보팀



4~6 현대코퍼레이션은 세계 정상의 철강전문 기업들과 함께 풍부한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최강의 글로벌 철강 트레이더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철강가공, 공업용지 개발 등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성공적인 해외투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출처: 현대코퍼레이션 공식홈페이지)

## ‘더 판교’ 확장이전 “속도감 있는 협업환경 구축”

BKL ‘더 판교’(The Pangyo)가 2022년 1월 3일 확장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의 요람인 판교에 사무소를 확장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거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까이서 판교기업 및 인근 소재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KL은 고객들이 종로 본사의 강점을 판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투자, IT, 금융, 인사노무, 규제, 조세 등 각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와 역량 있는 신예들을 수혈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 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본사 소속 젊은 파트너 전문가 20여 명이 본사와 판교오피스를 순환 근무합니다. 전체 상시 인원은 30여 명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최근 커지고 있는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자문 수요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로펌업계에서 생소할 수 있는 자율좌석제 기반의 스마트오피스도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연성 있게 일하면서 속도감 있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9개)를 운영하고 있는 BKL은 ‘더 판교’ 확장 이전과 함께 판교-본사-해외사무소를 연계하는 3각 협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크고 작은 국내외 난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BKL은 투자부터 IPO, 해외진출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문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완결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11개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BKL만의 역량입니다.



판교 사무소 전경

## BKL, 변화의 시기에 발맞춘 전문팀 출범... 금융범죄·헬스케어 등 분야 전문성 강화

BKL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한 고객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는 전문팀들을 출범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이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BKL은 선제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를 출범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로 TF를 구성했습니다.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와 같은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BKL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융합해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합니다. 해당 센터는 실무 감각이 뛰어난 젊은 시니어 전문가를 전진배치해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감독기관 등의 실무자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는 정책/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헬스케어팀**도 규모를 확대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특허, 인허가, 요양급여 대상결정, 약가 및 수가 조정, 생산 및 유통, 시판 후 관리, 라이선싱 등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공정거래, M&A, IPO, 영업비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슈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BKL 헬스케어팀은 행정당국의 조사에 대한 대응, 각종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민·형사소송 등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신속정확한 대응

BKL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365일, 24시간 기업의 안전사고에 대응 가능한 ‘종합상황실’ 체제를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유사시 기업을 밀착 지원하여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끄는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사고 초기 현장대응팀을 급파하고, 리서치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사후 재판 대응, 행정조치 대응,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고객 기업의 위기에 대응할 현장대응팀은 4~5개 팀으로 움직이며 보다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팀은 인사노무·검/경 분야의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감독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BKL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인사노무, 형사 분야를 주축으로 환경,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 전사적 조직으로서 ‘국내 최강 맨파워’를 바탕으로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1년 매출 ‘3857억원’ 역대 최대 실적 경신

BKL이 지난해 매출액 3857억원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특허·해외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로 전년보다 10%(352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저희 법인은 국내 로펌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번 실적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업무 능력과 전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BKL의 규모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로펌으로서 변호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꼽히는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액(8억3700만원) 역시 3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사업 분야 개척, 전문인력 강화 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BKL은 모든 법률 분야에 걸쳐 스타급 변호사를 포함하는 강력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송무와 자문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고객들의 신뢰와 격려를 자양분 삼아 ‘고객 중심’ 가치를 실천하며 더 큰 성장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영업소식

- **정상철 변호사(31기)** - 2002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일했으며 2017년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 **류재훈 변호사(32기)** - 200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사로 일하며 다수의 민사·가사·형사·행정의 중요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 **나종민 고문(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를 하였다. 재직 중 문화예술, 관광, 문화산업,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치면서 ‘한류의 기획자’로 불렸다. 2017년부터 1년 6개월 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역임했다.

Alumni news

- 송영주 고문(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 및 정책담당 부사장) - 1985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일보에 재직하며 의학 전문 대기자로 활동, 이후 보건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정책홍보 담당관을 역임했다. 또 한국존슨앤드존슨에서 부사장(Head of Government Affairs & Policy)으로 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OTC 등 계열사의 대외협력 및 정책 업무를 총괄했다.
- 정완용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정 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통신정책기획과장,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전략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통신과 방송분야 규제 및 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했다.

수상소식

**BKL, 14년 연속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선정**

BKL이 해외 법률전문 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4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로펌에 재직중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BKL, 2022 건설·부동산 분야 최고 평가**

BKL이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최고 로펌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BKL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건설·부동산 최고 로펌에 선정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이외에도 BKL의 오정면·송재우·범현(건설·부동산), 오금석·강일(공정거래), 송우철(경제사건), 김상민·최진원(중대재해) 변호사가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습니다. BKL은 국내 로펌 최초로 건설부동산그룹을 설립했으며,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건설·부동산 관련 법률이슈 및 쟁송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15년 연속 국제중재분야 글로벌 100대 로펌 선정**

BKL이 글로벌 중재 전문지 Global Arbitration Review(GAR)에서 발표한 'GAR 100(국제중재 분야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됐습니다. 태평양은 제1회 GAR 100에 등재된 이후 15년 연속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BKL, 7년 연속 ALB IP Rankings 2022 1위 그룹 선정**

BKL이 해외 법률전문 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발표한 올해의 IP Rankings에서 특허 부문, 저작권/상표권 부문에서 모두 1위 그룹에 선정됐습니다. BKL은 올해로 7년 연속 1위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전문성을 인정 받았습니

**방형식 외국변호사, ALB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 선정**

BKL 방형식 외국변호사(뉴질랜드, 미국 뉴욕주)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발표한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2)'에 선정됐습니다.



**박지연 변호사, 국내 최초 'Women in Data 2022' 선정**

BKL 박지연 변호사(31기)가 글로벌 데이터, 법률 전문 매체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습니다.



**강동욱 변호사, ALB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 2년 연속 선정**

BKL 강동욱 변호사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발표하는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2)'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김현정 변호사, IFLR 선정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BKL 김현정 변호사(로스쿨 4기)가 '2022 IFLR 아태지역 시상식(IFLR Asia-Pacifi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상을 수상했습니다. BKL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라이징 스타를 배출하며 자본시장 법률자문 부문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성조 변호사·박지영 외국변호사, 'ALB 올해의 딜메이커' 선정**

BKL 윤성조 변호사(27기)와 박지영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발표한 '2021 아시아 딜메이커(Dealmakers of Asia 2021)'에 선정됐습니다.



## Stay in touch

BKL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 및 소식
- 연락처/정보변경
- Job offering

## Contact

김 지 현 변호사

T 02.3404.0180

E jhyun.kim@bkl.co.kr

김 지 나 책임 | 기획실

T 02.3404.0872

E alumni@bkl.co.kr

편집 및 디자인 | 홍보팀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T 02.3404.0000 E bkl@bkl.co.kr [www.bkl.co.kr](http://www.bkl.co.kr)

© 2022 BAE, KIM & LEE LLC. ALL RIGHTS RESERVED.